

## 발달학적 측면에서의 효의 기능과 의미

### MEANINGS AND FUNCTIONS OF HYAO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洪 剛 義\*·朴 善 子\*

Kang-E M. Hong, M.D., Sun Ja Park, M.D.

요약 : 한국의 전통사상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효의 개념과 기능을 발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효란 부모-자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사랑을 주고 받는 애착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공격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oedipus complex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한편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 동일시(positive identification)의 model이 되어 자녀로 하여금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일생을 통해 인격형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역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서 론

효는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모든 덕의 근원으로 서,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내려오고 있다. 효경대의에 보면 '무릇 효도는 덕의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사람의 몸뚱이와 머리터럭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도(送)는 행하고 이름을 뒷세상에 드날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은 효도의 마침이니라. 대체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데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는 제물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효란 자기를 출생시켜준 부모의 은혜에 답하여 마땅히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전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격적으로는 최고도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관계적으로는 친자관계에서부터 군신관계, 천하관계까지로 확대되는 관계라는 것이다(문경서와 김상태 1983). 이렇게 보면 효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어떤 특정한 의미와

기능만에 국한시킬 수 없는, 일생의 모든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고된 효에 대한 문헌으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조두영(1975, 1976)이 공자에 있어서의 효와 효자·효녀전에 있어서 63예의 효행을 분석한 것이 있으며, 분석심리학적으로 이죽내(1980)가 한국 효행설화와 효경에 나타난 효를 분석한 것과 하재창과 이죽내(1981)가 심청전을 분석한 것이 있고, 문화정신의학적으로 차준구(1979)가 한국전설에 나타난 65예의 효행을 고찰한 것이 있으며, 문경서와 김상태(1983)가 효의 정신의학적 의미를 고찰한 문헌 등이 있다. 이들 문헌들은 효의 특성을 어느 특정한 의미와 기능에 치중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효를 발달학적 측면에서 그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효와 애착 : 상호의존성

먼저 효 사상을 근거로 하는 부모-자녀관계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애착의 관계임을 이

야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효사상을 중요시하는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역동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으로 순종하고 효를 행하는 관계로 생각하기 쉽다. 즉 효의 원천은 생명의 은인인 부모에 대하여 자식으로서 은혜에 보답하여야 된다는 의무감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효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라기 보다는 부모-자녀사이의 reciprocity 즉 상호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김광일 1978). 즉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반면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효가 상호관계라는 점은 '孝'라는 중국본자 자체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중국의 하남성 안양의 殷墟에서 발굴된 殷代(기원전 약 1766년-기원전 약 1122년)의 갑골문자의 해독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즉 '孝'字는 '父'字와 '子'字의 合字라는 것이다. 殷代당시까 일부 일처제의 가부장제도하에서 양친의 대표기는 父이고 자녀의 대표자는 子이므로 '孝'字는 바로 양친과 자녀의 관계-친자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문경서와 김상태 1983).

이와 같이 효는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이면서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개성과 경쟁,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동양의 문화는 조화와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을 더 강조한다 즉 동양에서는 아버지 또는 형제에 대한 경쟁(rivalry)이 서양에서보다 덜 강조되며, 개인의 성취보다는 그가 속한 가족 또는 사회전체의 성취가 중요시 되어 왔다(김광일 1978).

조두영(1976)은 효자, 효녀전의 '효자, 효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그 84 percent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어느모로든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린이는 부모나 윗 사람에게 의존적(dependent)이라는 점, 청소년도 정신적으로는 거의가 사춘기에 해당하여 의존심과 독립심과의 갈등이 심한 시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여기에는 의존성의 문제가 얽혀있어 주체성을 가진 뒤에 행하는 효와는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약부의 가능성에서 의존성과 그 의존대상을 상실하지 않을

까 하는 心(fear)에서 나오는 행동이 때로는 효행으로 부각되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기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후에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지속되며,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의존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의 측면에서 보면 자녀가 아무리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를 미숙하고 유아적인 존재로 다루며 의존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자가 경제적인 협력체를 이루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부양한다는 상대적이고 직접적인 이혜관계도 은혜와 효라는 개념으로 변형되어 부자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이와 같이 효를 기초로 하는 부자관계는 직계가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부와 장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을 계승할 사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가부장은 특히 후계자인 장자에게 더 엄하게 대하고 보다 성실한 효행을 기대하며 이러한 부자관계는 형제, 자녀관계를 포함한 다른 대인관계에 까지 확대되어 행동유형이 되고(이광규 1990) 결국은 전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의 사회윤리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발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적인 상호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동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발달의 단계에 따라 관계의 역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양자가 성장, 발달, 변화해감에 따라 상호관계의 질이나 양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릴때에는 부모에게서 자녀에로의 거의 일방적인 내뿜사랑, 힘에 의한 보호, 교육, 지배관계가 이루어져 부모는 자녀의 교육, 직업문제는 물론 생계문제까지도 돌보아주고 해결해주며, 나아가 결혼이나 손자녀의 양육까지도 도맡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같은 종류의 반작용이 생기게 되어서 부모가 직업을 잃게 되거나 생계를 이을 능력이 없을만큼 노쇠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게 되며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부양을

위해 자기의 사적 생활을 희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처음에는 돌보기-기대기의 관계였던 것이 기대기-돌보기의 관계로 역전하게 되며, 거기에 따라 그 사이의 역동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김재은 1987). 이것이 효의 특성이며 따라서 효는 일생의 모든 발달에 기초가 되는 덕성이라 할 수 있다.

## 2. 효와 공격성

다음은 효가 공격성을 조절하는 한 방법일수 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두영(1976)은 효자·효녀전에서 나타난, 효의 핵심은 도덕적 피확성에 있다고 하면서 '효행담의 주인공이 자신을 확대함으로써 처벌받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해결된 Oedipus complex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id속에 있는 효대상에 향한 공격성을 억제하려는 이유에서 미리 처벌을 받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만약 효대상에 대한 공격성이 발휘되나면 효대상을 잃는 것(loss)이 되기 때문에 공격성을 억제하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부정(denial)이라는 자아의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의식적, 무의식적 공격성과 복수심의 만족을 위한 이들의 효행은 공자가 말하는 효행은 아닌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효가 공격성을 조절하는 한 방법일수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서 효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른에 대한 금기(taboo)도 또한 공격성을 조절하는 의미가 있음을 고려해야겠다. 박수영과 이병운(1980)은 '어른, 부모 및 윗 사람들에 대한 taboo중에서 '어른에게 드릴물을 먼저 마시면 그릇에 입이 붙는다.' '어른의 모자를 쓰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 '집안 어른이 아끼던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치우면 집안 망한다.' '길에서 칼이나 담뱃대를 쫓으면 재수없다.' '남의 옷을 먼저 입어 보면 대신 죽는다.' '먹다 남긴 것을 먹으면 명이 짧다.' 등의 예를 보면 어른이 사용하는 물건, 옷 그리고 먹다 남긴 음식 등에 대한 금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taboo의 특징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어른의 보호가 그 목적이며 아울러 직접적

및 간접적 접촉을 금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어른과의 접촉에 대한 taboo는 어른의 보호와 어른에 대한 존경이지만 실제로는 어른이 갖고 있는 무한한 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생기는 공격성을 금지하는 것이다 어른에 대한 taboo를 지키면서 느끼는 근심과 걱정의 이면에는 강한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른에 대한 양극성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부모에게 느낄수 있는 양가 감정의 하나인 분노와 공격성이 효에 의해 통제, 승화되면서 그 결과 부모와 애정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효와 Oedipus Complex

다음으로 효와 Oedipus complex 관계를 살펴 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에서 효에 대한 연구는 효자·효녀전에 나타난 효는 oedipus complex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oedipus complex에 의한 병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조두영 1976) 효가 Oedipus complex의 해소방법의 하나(김광일 1978, 차준구 1979)라는 결론이 주종을 이루었다.

차준구(1979)는 한국 전설의 효자 효녀와 관계된 이야기가 수록된 문헌의 연구에서 '이성간의(즉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효관계 성립이 동성에서(즉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보다 많았으며, 이야기의 전제가 이미 동성의 부모는 돌아가시는 식으로 나타나 있어 동성의 부모는 이미 심리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며 이는 효행의 심리적 동기가 oedipal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며 '이성의 부모에 대한 근친상간적 동기가 상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성의 부모에 대한 효행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반동형성의 과정을 거쳐서 효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조두영(1976)은 효자·효녀전에서의 효를 정신분석한 결과 '효의 대상인물로는 어머니가 압도적이며 주인공은 아들이 압도적이어서 이들 관계에는 성적인 면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며 따라서 Oedipus Complex 같은 전생식기적(pregenital)정신성적 성숙의 면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거세 공포의 예로서 수신의 예를 들고 있다.

또한 효가 Oedipus Complex로 부터 비롯되었다는 의견과는 달리 Oedipus Complex의 해소(resolution)의 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김광일(1978)은 한국 신화의 Oedipus 복합의 표현양상의 특징으로 직설형으로 표출된 Oedipus이야기를 찾을 수 없고 심한 상징과 Totemism속에 단편적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에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가 절단되거나 다른 대상으로 전이해 버리는 경향이 농후하고 혼모의 의욕도 철저히 억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는 평화로운 권력이양, 부상의 전이, 모의 증개역할, 초자연에의 투사 등으로 殺父의 의욕을 잘 승화시키고 있었고 婚母의욕도 상징화, 효에의 승화 등으로 바람직한 해결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상 논문에서 전통적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보면 효행의 일차적 동기가 Oedipus complex라는 의견도 있으나, 본 저자의 견해로는 Oedipus complex가 효라는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 보다 바람직한 행위로 해소 승화된 것이며, oedipus 시기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발달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효와 부모의 역할

다음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 동일시(positive identification)의 model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경서와 김상태(1983)는 '공자는 효를 신분에 따라 천자, 제후, 경대부, 사부, 서인의 5등급에 따라 그 신분과 역할에 해당하는 효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효의 신분상의 등급이 인격발달단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또 이를 한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계층별 효는 인격성숙도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효경에 보면 서인의 효도에 대해서는 '하늘의 도를 쓰며 땅의 이로우므로 인하여 몸을 조심히 하고 쓰기를 절도있게 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 최고의 신분인 천자의 효도에 대해서는 '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제 부모에게 다하고 보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이니'라고 하였다 서인에게는 일반적인 효의 개념인,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을 말한 반면, 천자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다하여 결국은 이를 천하기 본받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모방하고 modeling하여 결국 내재화 하도록 하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동일시의 두가지 중요한 동기는 애정 또는 불안(love or anxiety)으로서 어느 요소가 더 강력히 작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동일시(positive identification)를 할 수도 있고 불안한 동일시(anxious identification)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즉 부모의 사랑은 안정된 자아상, 신뢰감, 자신감의 형태로 내재화 되어 자아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반면, 공포, 불안, 좌절에 근거한 동일시는 양가적 관계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안정된 성격형성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긍정적 동일시에 의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5. 효와 인격의 완성 및 자아실현

다음은 효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죽내(1980)는 '효는 어떤 특정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선형적으로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 이는 하나의 원형적 속성이다'라고 하면서 '부모의 원초적 의미는 [음양]과 [천지]이며, 음과 양 천과지의 대극(對極)이 지양된 상(象)인 태극은 [자기](das selbst)와 상이 개념이다. 이로서 부모는 분석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의미하므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효도는 하늘 즉 [자기]를 소중히 여겨 천자가 되는 즉 [자기]를 실현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문경서와 김상태(1983)는 ‘효의 최고단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진아(眞我)실현화(actualization of real self)의 단계나 自己 실현화 욕구(need for self actualization)의 성취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효는 서양정신 의학에서의 인격발달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견해와 또한 효가 애착, 공격성, 성등 모든 발달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고려하면 효는 인격의 완성이나 자아실현에 근본이 되는 의미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6.孝기능의 발달학적 통합

공자는 효경대의에서 ‘사람의 몸뚱이와 머리터럭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뒷세상에 드날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은 효도의 마침이니라, 대체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데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는 제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효도의 시작은 부모가 낳아준 몸의 정상적 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정상적인 신체적 성장과 정상적인 신체적 자아형성(Body ego formation)이 성격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정신의학적이론과도 통한다.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 성장과 능력을 길러서 인격의 완성,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성인의 발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먹여살리는 것이 아님은 공자 자신도 밝혔는데 논어에 보면 ‘오늘날에는 효라고 하면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와 말까지도 먹여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고 하였다. 즉 효는 단순한 애정의 표시나 의무가 아니고 존경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유아기에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attachment)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감(Basic trust)이 생겨야 한다는 이론과 통하는 바가 있다. 효는 결국 모자간에 생겨나는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 기본적인 애착없이 성격발달이나 대인관계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현대정신

의학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효자 효녀전의 분석(조두영 1976)과 전설의 분석(차준구 1979)에서 보아도 효행을 한 상황은 대부분 부모가 곤경에 처해있거나 병중에 있을 때이고 그 행위의 내용은 주로 먹을 것과 보살핌 즉 구강기적, 유아기적 욕구의 충족이었다. 그러나 효는 기본적인 애착을 의미함으로 단순한 의존욕구나 애정적 충족에 그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공격성과 분노, 파괴성향 등을 억제, 반동형성, 승화 시킬수 있고 Oedipus 시기의 성적 갈등과 긴장 등을 풀어나가고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는 발달학적이론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효행이 대부분 청소년시기에 이루어짐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청소년시기의 인지발달과 자아정체성확립의 일환으로 동양사회에서 사회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가 강조됨은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효에 관한 일화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심청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심청전은 일견하면 Oedipus Complex가 관련된 대표적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생모가 죽은 이후 홀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자란 심청(그것도 아버지 자신이 히스테리성 맹인?)이 심한 oedipal tension과 이에 수반하는 죄악감 때문에 몸을 팔아 공양미 300섬을 장만하고 자신은 임당수에 몸을 던지고(자살?) 그리고 하늘이 감동하여 왕비로 소생하게 되는 극적인 효행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oedipal 환측면외에, 심청전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모가 낳자마자 죽었음으로 심청이에게는 아버지가 애착의 일차적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둘의 관계는 oedipal 관계 이전에 애착과 상호의존의 관계로서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고 살아오다가 15살이 되어 과년한 처녀가 되자 아버지를 떠나 건장한 뱃사공과의 남녀관계를 경험하고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여 왕비로 간택되었으며(입신), 성공한 뒤에도 아버지를 잊지않고 찾아서 일생을 모셨다는 좀더 긍정적인고 발달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효행의 가장 최초예이자 대표라고 하는 순제의 기록도 효의 근본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애정, 애착심이라는 것과 효가 모든 대인관계, 사회관계, 정치의 기간이 됨을

잘 얘기해 준다. 순재는 역산이란 땅에서 농사짓던 미천한 농부로 그 아버지 고수는 완악하고 게으른 미련하였으며 이복동기는 오만하고 어질지 못하여 그들이 한패가 되어 순을 죽이려 여러가지 모략을 하였다. 고전판 아동희대라 할 만큼 여러가지 학내와 위기에 처하였으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살아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를 극진히 섬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그가 역산에서 밭갈다가도 하늘을 향해 묵동이 울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효의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 즉 애착에 있음을 얘기해주는 일화이며 순의 끊임없는 효는 고수의 마음을 돌렸고 마침내 순의 녀과 지혜가 일러져 요임금의 사위가 되었고 재위를 선양받아 후대에 기리남는 어진 임금이 되었다. 매우 교훈적인 얘기다.

## References

김광일(1978) : The Oedipus Complex in Gu Cha

- ngin2 Socie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신경정신의학 17 : 93-103
- 김재운(1987) :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문경기·김삼태(1983) : 효의 정신의학적 의미. 신경정신의학 22 : 27-31
- 박주형·이경운(1980) : 한국인의 taboo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고대의대논문집 17 : 503-518
- 이광숙(1991) :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인제대학교출판부
- 이민숙(1988) : 효경. 서울, 을유문화사
- 이숙내(1980) : 한국 효행설화의 효성에 나타난 효에 관한 분석. 심리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 : 281-287
- 조두영(1975) : 공자에 있어서의 효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4 : 131-139
- 조두영(1977) : 효자·효녀전에 있어서 효의 정신분석. 서울의대잡지 17 : 119-128
- 차주환(1987) : 논어. 서울, 을유문화사
- 차준구(1979) : 한국 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8 : 82-90
- 하재창·이숙내(1981) : 심청전의 심리학적 분석. 최선의학 20 : 263-271

## MEANINGS AND FUNCTIONS OF HYAO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Kang-E M. Hong, M.D., Sun Ja Park, M.D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yao" has been studied by several Korean psychiatrists, mostly in relation to Oedipus complex and psychopatholog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authors propose that "Hyao"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 broader and more basic in its meaning and functions which are listed as the follows.

- 1) Hyao as an attachment, mutual dependence and basic trust between the generations.
- 2) Hyao as a control mechanism of aggression between the generations.
- 3) Hyao as a control and resolving mechanism of oedipus complex.
- 4) Hyao as an organizer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elf-actualization.

These functions of Hyao were integrated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in promoting and offering their model behavior for positive identification were discussed.

"Hyao" is suggested as being primarily mutual attachment and reverence(respect) between the generations which promote healthy resolutions of issues and conflict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to be followed.